

증권사 '수익률 5%' 발행어음·RP 특판상품 완판행진

NH투자증권 신규고객 10만명에 판매 월 최대 50만원씩 6회, 180일 만기

KB증권 월 50만원 1년동안 적립 CMA 개설고객에 석달간 우대수익

저금리 기조 속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산이 연 5% 특판 상품에 몰리고 있다. 신규 계좌개설, 최초 비대면 가입고객 등 조건이 까다롭고 주로 1년 정도의 단기 상품이지만 나올 때마다 완판 행진이다.

발행어음 자격을 갖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연 5% 특판 발행어음을 출시하고, 그렇지 못한 증권사는 연 5% 특판 환매조건부채권(RP)을 선보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연 5%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은행권의 1년짜리

〈연 5% 이하 주는 증권사 금융상품〉

증권사	상품	조건	비고
KB증권	특별 우대수익률 CMA	KB증권 최초 CMA 개설 개인 고객	선착순 5만명
	특판 적립식 발행어음	주민등록기준 최초 신규 고객, 6월 2일 이전까지 당사에 활동 계좌가 없는 고객	3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NH투자증권	특판 적립식 발행어음	비대면 신규 계좌 개설 고객	선착순 10만명
신한금융투자	연 5% 특판 RP	신규고객이 비대면CMA계좌 개설 시	선착순 2만명

〔자료=각사〕

정기예금 금리가 1%대이기 때문에 증권사의 특판 상품은 '없어서 못파는' 중이다.

우선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발행어음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는 연 5%짜리 특판 발행어음을 내놓을 때마다 완판행렬이다. 보통 적립식 발행어음 금리는 3% 수준으로 특판 상품은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역마진' 상품이다.

현재 5% 특판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이다.

NH투자증권은 연말까지 모바일 거래플랫폼 '나무'의 신규 고객 선착순 10만명에게 연 5% 금리를 지급하는 적립식 발행어음 판매를 시작했다. 월 최대 50만원씩 6회까지 투자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가입일로부터 180일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지난 1월에 내놔던 5% 특판 발행어음이 한 달만에 완판됐다"면서 "5% 상품에 대한 고객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특별판매를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KB증권 역시 5% 특판 발행어음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 이후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월 50만원(연간 최대 600만원) 범위 내에서 1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상품이다. 판매 한도는 300억원이다.

아울러 CMA 특판도 진행하고 있다. KB증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계좌를 처음 개설한 고객 중 선착순 5만명에게 석달간 특별 우대수익률(연 5%)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발행어음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들은 환매조건부채권(RP)을 통해 연 5% 금리 상품을 내놓고 있다. RP란 증권사가 만기 때 정해진 조건으로 채권을 되사기로 약속하고 판매하는 채권을 말한다.

현재 신한금융투자는 비대면 CMA 계좌 개설 시 3개월간 100만원 한도로 연 5% 약정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선착순 2만명이 대상

이다.

앞서 하나금융투자는 지난 6월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매월 20만원 한도로 연 5%의 수익률을 제공하는 월 저축형 RP 상품을 내놔는데, 판매 한 달 여만에 잔고가 모두 소진됐다.

이러한 고객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또 다른 특판 상품을 준비 중에 있다.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연 5% 특판 RP 상품은 꾸준히 내놓고 있고, 꾸준히 완판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 5% 특판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업계에선 역마진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증권사가 RP, 발행어음에 5% 금리를 약속한다는 것은 역마진을 감수하면서도 고객을 모으겠다는 의미"라며 "이렇게 유입된 고객을 잘 활용하는 고객관리 노력이 있어야 증권사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엄지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제넥신-툴젠 합병무산 악재 덮은 안국약품의 기술이전

항반변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에 주식시장서 '바이오주' 급반등

현대약품, 치매약 해외임상 착수

지난 20일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한도 초과로 무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바이오주에 또 다른 악재가 추가됐지만 21일 주식 시장에서 바이오주는 호재 소식이 전해지며 급반등했다.

20일과 21일 안국약품·현대약품·인스코비 등이 호재성 뉴스를 내놓으면서 합병 무산 악재를 누르고 바이오주가 동반 급등한 것.

안국약품은 지난 20일 바이오벤처 레피젠과 노인성 항반변성 치료제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 현대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치매치료제 복합제 임상 3상을 승인받고 국내 및 해외임상에 착수한다고 밝혔으며, 인스코비가 '발모 촉진을 위한 생체 식립용 임플란트' 특허를 국내 및 일본에서 동시 취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했다.

이날 인스코비는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현대약품은 13.15% 급등했고, 안국약품은 5.75% 상승해 강세를 보였다. 또 불확실성을 해소한 제넥신도 6.24%가 올라 장을 마감했다. 메디톡스도 5.88%가 올랐고, 셀트리온·셀트리온헬스케어·셀트리온제약 및 헬릭스미스도 상승세로 마감했다.

증권가 전문가들은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 무산은 예상됐던 만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분석하

고 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두 회사의 합병 공시 이후 여러 악재들로 인해 제넥신의 주가가 빠지는 상황에서 합병 가능성은 낮아보였고, 오히려 불확실성으로 남아있었다"며 "합병이 무산된 점은 기술 시너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아쉽지만 불확실성은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달미 SK증권 연구원은 "제넥신과 툴젠의 합병이 발표된 당일 툴젠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이 이슈가 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으로 분석했다. 이명선 신영증권 연구원도 "합병 무산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어서 업종 내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에서는 오히려 이번 합병 무산 발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측면에

서 긍정적이며, 제넥신을 저가 매수할 기회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선 연구원은 제넥신에 대해 "합병을 찬성한 주주들로 인해 주가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합병 발표 전 주가로 회복될 것"이라며 "파이프라인 가치는 변함이 없어 불확실성이 해소된 지금이 저점 매수 구간"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선민정 연구원도 "두 회사간 기술적 협력은 지속될 것이며 제넥신의 기술개발(R&D) 모멘텀도 하반기에는 본격 시동을 걸 것"이라며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하이루킨 투여 임상 1b상 데이터를 11월 6일 개최되는 면역치료학회, SITC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지속형 성장호르몬 임상 3상 IND 신청서도 4분기 제출할 수 있을 것이어서 저점 매수 기회다"라고 판단했다. /채운정 기자 echo@

정수기 넘어 탈취·공기청정까지... 30년 기술 '글로벌 노크'

IPO간담회

정수기필터 제조 한독크린텍

웅진코웨이·LG전자 등 제품납품 내일까지 수요예측, 27~28일 청약

정수기 필터 제조사 한독크린텍이 다음달 코스닥시장에 상장한다. 회사는 이번 상장을 통해 카본블록 정수 필터의 안정적인 매출을 기반으로 사업 다각화를 펼쳐 나간다는 방침이다. 가정용 정수 필터에 집중했던 회사 포트폴리오를 상업·산업용 정수 필터까지 확장하고 탈취, 공기 청정 필터 시장에도 새로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한독크린텍은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IPO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코스닥 시장 상장에 따른 향후 전략과 비전을 밝혔다. 공모 자금은 93억~105억원 수

준이다. 조달된 자금은 정수 필터 자동화 생산 라인 시설 설비 투자와 탈취 필터 생산에 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비, 운영자금에도 사용된다. 공모주식수는 70만주, 주당 공모 희망 밴드는 1만3300원~1만5100원이다. 오는 22~23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를 확정하고 27~28일 일반 공모 청약을 진행한다.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고인선 한독크린텍 대표이사는 "30년 업력으로 발전시킨 압축 카본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 영역을 계속 확장할 계획"이라며 "코스닥 상장을 계기로 사업다각화에 속도를 내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독크린텍은 1990년 설립된 한독CW가 2003년 법인으로 전환한 회사다. 국내 최초 도입한 압축 방식 카본필터 제조 기술을 기반으로 정수기 필터 시

장에서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대표 사업으로는 ▲카본블록 필터 ▲PE 선처리 필터 ▲탈취 필터 제조 등이 있다. 특히 카본블록 정수 필터는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과 악취를 걸러내는 주요 필터로 정수기에 사용되는 제품이다.

한독크린텍의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액 396억2700만원, 영업이익 49억1200만원, 순이익 41억6500만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46%, 127%, 72%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매출액 231억8100만원, 영업이익 28억3200만원, 순이익 25억6300만원을 기록했다.

한독크린텍의 압축 카본블록 필터는 제품 단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고유량, 고기능성을 보유하고 있어 정수기 제조 업체의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실제 웅진코웨이, LG전자, SK매직, 쿠쿠홈시스, 교원 등 주요



2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광규 한독크린텍 전무가 다음달 코스닥시장 상장을 앞두고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한독크린텍

정수기 제조사에 제품을 납품하며 사업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다.

매출도 안정적이라는 평가다. 전방 사업인 국내 정수기 사업이 렌탈 케어 사업 모델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내 정수기 보급률은 약 60%에 달한다. 또 국내 정수기 시장 규모는 2016년 2조2000억원에서 연평균 2.19% 성장해 2020년 약 2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증권 다이제스트



하나금융투자 신규 고객에 '요기요 쿠폰'

하나금융투자는 국내 주식을 처음 거래하는 손님에게 배달어플리케이션인 '요기요'에서 사용이 가능한 쿠폰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오는 9월 19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하나금융투자에서 국내주식을 처음 거래한 손님에게는 '요기요'에서 사용 가능한 만원 상당의 할인쿠폰이 제공된다. 첫 거래 후 2개월 동안 추가로 주식을 매매하면, 거래가 있는 달에 오천원씩 쿠폰을 더 준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손님은 최대 2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선착순 2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쿠폰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금융그룹의 토탈 금융 플랫폼인 '하나멤버스'에서 먼저 이벤트에 응모해야 한다. /손엄지 기자

삼성증권 입맛대로 골라골라 이벤트

삼성증권은 연금 중 대표상품인 TD F(Target Date Fund)에 신규 입금하거나 연금을 이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월 말까지 '삼성증권 입맛대로 골라골라'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연금저축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신규 입금 후 이벤트 대상인 6개 운용사의 상품 중 원하는 TDF를 매수하면 자동으로 이벤트에 참여된다. 참여 고객은 삼성증권 연금저축계좌에 신규로 400만원 이상 입금한 후 TDF를 매수하면 매수 금액에 따라 최대 4만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김유진 기자